

크고 넓은 꿈 심어준 '보석상자'

여행가 한비아씨가 뽑은
질 베른의 《80일간의 세계일주》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에 내기를 걸었던 거죠. 그리고 이 책에는 내기에 질 위험을 감수하면서 죽음의 위기에 놓인 인도여자를 구해낸 주인공의 인도애가 담겨 있습니다.”

여행은 낯선 세계와의 충격적인 만남이자,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80일간의 세계일주》(대일문화사)는 여행가 한비아씨(41)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책이다.

“초등학교 때 이 책을 처음 접했는데, 표지에 열기구가 그려져 있고, 지금처럼 예쁜 그림도 별로 없는, 조금은 조잡한 책이었지요. 그런데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0일만에 세계일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지요.”

그는 어린 시절 늘 세계지도를 보면서 자랐다. 세계지도가 걸린 벽, 세계지도가 그려진 식탁보, 지구본 저금통 등. 그가 큰 꿈을 품고 자라길 바라셨던 아버지의 배려 때문이었다. 일찍부터 세계 여행에 대한 꿈을 키우던 그에게 이 책은 구체적인 세계여행의 비전을 제시해줬다.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에 내기를 걸었던 거죠. 그리고 이 책에는 내기에 질 위험을 감수하면서 죽음의 위기에 놓인 인도여자를 구해낸 주인공의 인도애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입때껏 50번쯤 읽은 것 같다고 한다. 그만큼 이 책은 그에게 삶의 동력이 돼왔던 셈이다. 가끔 그는 이 책의 주인공과 자신의 여행을 비교해 보기도 한다. 많은 부분에서 다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는 점에서는 같다.

“여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시선은 사람이나 문화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해주지요.”

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의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은 《80일간의 세계일주》와 지구본 저금통이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세상은 그렇게 넓지 않다’ ‘안 될 것 같아도 해보면 되는 일이 훨씬 많다’고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그는 얼마전 해남 땅끝마을부터 강원도 고성 of 통일전망대까지 여행한 《바람의 딸, 우리 땅에서다》(푸른숲)를 펴냈다. 올해는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친 후 국제난민기구에 들어가 활동할 계획이다. 늘 그러했듯, 새로운 세계를 향해 다시 여행길에 나선 것이다. - 김정은 기자

열린 마당

가장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 ❶ 출판의 승부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 ❷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❸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표지·광고·팜플렛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원고작성·번역·편집·디자인·제작代行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제판·인쇄·제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삼덕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인쇄·제본공장 : 465-4707(代)